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께,
부활하신 주님,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신 주님을 맘껏 높여드리며 부활절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턴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거라는 얘기가 현실감있게
다가오는 요즘이지만 저희집 앞의 논에는
푸르른 벼들이 코로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쑥쑥 잘도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방 창문으로 보이는 논 입니다)

이모작 내지는 삼모작 까지도 가능한
이곳에선 황금 들판이 가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앞으로 한두달이면 벼가 다 익고
추수를 하게 될 듯합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논위로 떠오르는 태양,
지저귀는 새소리, 집앞에 익어가는
망고...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것 같습니다.



(올망졸망 망고 열매가 보이시나요? ^^)

누군가 스코 8 년차인 저희에게 그 시간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제가
친구,동역자라고 부르는 후원자,
여러분들의 신실함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7 년이 넘는 시간동안 후원을
중단하신 분이 한두분 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하지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신실함은 저를
여러모로 부끄럽게도 했고 또한 저로
하여금 신실한 삶을 다짐케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했습니다.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동역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도 꺾어보지 못한
고난과 불확실성의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후원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것입니다. 당분간
후원을 중단하셔도 되고 후원금을
줄이셔도 됩니다. 전혀 미안함이나 정죄감

같은걸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아지고 제자리를 찾게 되면 그때 다시
후원을 재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후원이 가능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일이고
기쁘게 후원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후원을 지속하시는 분도 당분간
후원을 중단하시는 분도 한마음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신걸
아는 저희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것입니다.

이렇게만 글을 마치려니 좀 아쉬워서..^^

저희는 "잘"지내고 있습니다. 신창은
형제의 표현을 빌자면 "동네의원" 수준인^^
저희 병원이 정부에서 지정한 일종의
거점병원이 되어서 코로나 의심환자를
입원시키고 정부병원에서 와서 검체를
채취하고 다카로 검체를 보내 결과가
나오는 3-4 일 동안 환자를 돌보는 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없는
저희로선 치료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일단 정부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10 명의 코로나 의심 환자를 입원시키는
격리병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막연한 공포는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시골
농부나 의대를 졸업한 현지의사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제는 급기야
주니어닥터 커플이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났고 일부 의사는 격리병동 진료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다른 현지인 의사들도
개인보호장구 없이 환자를 보는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런 저런 질문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구요.아직은
의심환자라고 부를만한 환자가 입원한
경우도 없고 장기간의 lockdown 으로
병원은 아주 조용합니다. 방글라데시
전체로는 점점 환자숫자가 늘고 있고
이곳도 한두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이곳의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상황이 잘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또한 필요한 순간에는 제한된
자원으로도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환자에 대한
사랑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저희에게 그리고 현지 의료진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그래도 저희 있는곳이
제일 안전한 듯 느껴져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마저 있지만 결국 세상 그
어느곳도 안전한 곳은 없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주님 품 밖에 없다!
라는 진리만 새록새록 맘에 새기는
요즘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하며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아서" 한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께 사랑을 전합니다.

조이 지슈! (오수 승리!)

2020 년 부활주일

신창은,태희울림